

전북 최초 외국어교육 박람회 첫 선

전북형 외국어교육 혁신 모델 확산... 8일 전북교육청 야외마당 일원서

도내 최초 외국어교육 축제가 펼쳐진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8일 본청 야외마당 일원에서 '2025년 전북 외국어교육 박람회(Global Talk! Talk! Fa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사의 외국어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시키는 등 '전북형 외국어교육 혁신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북-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행사를 넘어 학생이 직접 배우고, 표현하고, 즐기는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야외 특설 무대에서는 지평선중의

영어 뮤지컬, 고창북고의 중국어 스피치, 전북외국어고의 일본어 연극 등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외국어 공연도 선보인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영단어 퀴즈, 중·고등학생 대상 문장 완성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 학습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도내 7개 영어체험학습(외국어교육)센터, 전북외국어고, 외국어교육 교육학습공동체, 영어중점학교, EBS 등이 참여하는 40개의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각 부스에서는 원어민과의 프리 토크(Free Talking), 외국어 보드게임, 세

계 의사·음식 체험, AI 기반 디지털 외국어 학습 등 외국어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한눈에 보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탬프 미션을 통한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했으며, 전통 의상 인생 네컷·포토존·푸드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이 외국어로 소통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습의 장이자, 외국어 공교육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내 학교들이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김용현 교수, 지역·대학 동반성장 공모전 '우수상' 수상

우석대학교 김용현(창업교육·지원센터) 교수가 지난날 3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린 '제1회 지역·대학 동반성장 방안 연구 공모전' 시상식에서 연구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경북대학교 RISE연구센터가 주관한 전국 규모의 연구대회로,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회에서 김용현 교수는 '지역·대학-기업 연계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 모델과 및 고도화 연구: 정부 주도 및 지역 혁신을 위한 전북현대모터스 업사이클링 창업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를 제안했다. 특히 지역 대학생들의 창업 역량 강화와 정부 여건 조성을 위한 실전 경험형 창업 교육모델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도내 학부모들의 소통과 화합의 축제인 '2025 전북학부모한마당'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부모 소통·화합 축제... '전북학부모한마당' 성료

도내 14개 시·군 학부모·학생 등 5000여명 참여

친환경·지속가능 축제 목표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학부모들의 소통과 화합의 축제인 '2025 전북학부모한마당'을 성황리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전북학부모한마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도교육청 야외마당과 참초나래(별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도내 14개 시·군 학부모와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여하면서 전북교육을 대표하는 학부모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행사는 △홍보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등 3개 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14개 시·군 학부모회가 참여한 흥

분부스에서는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과 지역별 특색사업을 소개했고, 전시·체험 부스에서는 심폐소생술, 가족캐리커처 그리기, 미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푸드트럭과 협의회 홍보부스에서 진행한 친환경 먹거리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지속가능한 축제를 목표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전북교육 핵심과제 중 하나인 'ESG 실천'에 동참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야외무대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준비한 에어로빅, 특공무

술, 합창, 점핑, 사물놀이, 태권도 등 축하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행사장 곳곳에는 포토존, 선물 물렛 이벤트, 에어바운스 놀이터가 마련돼 아이들과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지숙 전북학부모회협의회장은 "올해 학부모한마당은 친환경과 참여를 주제로 꾸몄다"며 "학부모님들이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전북교육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장이었다"며 "전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류민아 박사
체육학회 AR 논문 공모 '우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스포츠학과 류민아 박사가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제63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AR 논문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류 박사는 연세대학교 한대규 박사과정생, 경희대학교 도경민 박사와 함께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클라이밍 수송 연구의 학문적 기여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논문은 전문가와 참여자의 관점에서 AR 스마트 클라이밍의 수용요인을 분석하고, 기술적 효용성과 사회적 영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다. 특히 '동료영향'과 '자율성' 요인을 중심으로 참여자 경험 기반의 상황식 기획전략을 제시해 AR 스포츠 콘텐츠 발전의 방향성을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만 16세부터 청소년 투표 참여제 도입을"

새길 여는 참교육포럼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대표 노병섭·사진, 이하 새참교육)은 지난날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 16세부터 청소년의 선택적 투표권 시범 참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가 제한돼 있다"며 "만 18세 선거권은 진전이지만, 민주주의 완성성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병섭 대표는 "법적으로는 유권자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정치 금지 구역"이라며 "학생의 정치 참여는 위험이 아니라 민주주의 학습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독일 등은 만 16세 투표권을 시행중이고, 청소년 참여 화제가 정치적 혼란이 아닌 시민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 참정권을 단순한 연령 논쟁이 아닌 미래 세대의 시민 성장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참교육은 학생의 정치 시민 교육 정규 과정화, 학생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청소년의 선택적 투표권 시범 참여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지난 2월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농촌기본사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당시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의 연대 정책 넘어 신뢰로... 전북의 미래 설계

"오랜 신뢰·공감 인연, 전북 미래교육 등 시너지 기대"

전북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을 지낸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민주연구원 원장)이 지난날 31일 정을 JB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전북도 미래기획단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이한주 전 위원장과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의 각별한 인연은 정치권 안팎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전북과 특별한 연고가 없음에도 전북을 자주 찾는 이유가 바로 이 전 총장과 신뢰 때문이다.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부터 두 사람의 인연은 이어졌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전북도정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장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두터운 신뢰와 정책적 연대감도 한층 강화됐다. 이남호 전 총장은 전북연구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연구원의 연구역량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탁월한 연구 업적 또는 사회 활동을 통해 명성 있는 인사를 초빙하는 '석좌연구위원' 제도를 전국 시도연구원 최초로 도입했다. 당시 이 전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인 이한주 전 원장을 초대 석좌 연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었고, 흔쾌히 승낙했다. 두 사람은 농촌기본소득 연구, 지역균형발전 전략 수립 등 연구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민주연구원과 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연구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두 사람의 협력과 공감이 정책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2월에도 민주연구원과 전북연구원 공동 주관의 농촌 기본사회 정책포럼을 통해 '기본사회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특강을 가졌다. 이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이 전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산업 혁신의 연결 전략과 지역에 주도하는 미래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인연과 정책적 공감대가 향후 지역과 교육발전의 새로운 시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정책 협력관계를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로 이어진 '동행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이다. 이남호 전 총장은 "전북의 미래교육과 지역발전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의 정책기획 역량과 전북의 현장 실행력을 결합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주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였던 시절부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대통령 등 40년 가까이 정치 여정을 함께 했다. /장은성 기자

차기 전북교육금고 '농협은행'

6개 분야 20개 세부항목 평가 결과 '적격'... 내년부터 4년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2029년까지 4년간 교육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엔 교육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현금의 출납·보관,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기금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육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과의 약정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8월 26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금고지정 공개경쟁 공고를 실시했다. 그 결과 NH농협은행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 지난 28일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적격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도의원,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각 위원별로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매출 및 예금률 △교육기관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 6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심의결과 '적격'한 것으로 평가돼 전북교육청은 NH농협은행과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미래교사와 초등학생이 함께한 한복패션쇼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날 29일 완주군에 위치한 북학문화공간 '이원고택'에서 미래교사와 초등학생이 함께한 한복패션쇼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전통문화이음교육의 한복문화체험교육의 일환으로, 한복패션쇼 촬영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박병춘 총장은 "한복이음교육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적 실천의 장이 됐다



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미래세대가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